

머리  
PROLOGUE  
말

## 특집을 기획하며

‘한 마리 제비가 봄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또한 어린 시절 읽었던 이솝우화에서 늦겨울에 철모르고 찾아온 제비를 보고 외투를 팔았다가 얼어 죽은 청년의 이야기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찾아오지 않은 막연한 희망만으로 현실의 엄혹함을 망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그러나 처마 밑에서 독한 겨울 추위를 견디며 절망하다가 제비의 비행을 보고, 봄이라는 희망을 다시 품게 되는 경우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는 모두 역경 속에서 작은 희망을 붙잡고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가 힘든 만큼 희망은 더욱 간절해지기 마련이다. 남북스포츠교류와 남북교류 전반의 관계는 이런 제비와 봄의 관계와 유사하다. 한 번의 남북스포츠교류의 성공으로 남북교류 전반의 정상화를 예단해서는 어리석지만, 그것을 통해 희망을 품는 것조차 어리석다고 비난할 수 없다.

평창동계올림픽부터 인도네시아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지는 남북스포츠교류는 국내외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체육인으로서 이런 스포츠의 사회적, 국가적 역할에 대해 한없는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단언컨대 셀러리맨에게 있어 월급이 빚을 이길 수 없듯, 남북스포츠교류는 거시적 차원의 남북교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우리는 그간 군사 및 경제, 국제정치의 경색에 의해 기왕에 잘나가던 스포츠교류가 좌초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 당장 과거 10여 년간 남북스포츠교류가 거의 없었던 점은 이런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하여 다락방에서 10년도 넘은 책 다발을 다시 꺼내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특집은 실제로 ‘희망’보다는 ‘조심’에 주목한다. 조심스러워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거시적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달라졌지만, 주변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1, 2차 판문점 정상회담까지를 100m 주자의 스프린트로 비유한다면, 지금은 서로 다리의 길이가 크게 차이나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이인삼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서로를 배려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꾸준히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힘든 판에 그들이 걷는 길도 엉망진창이다. 한 눈 팔면 발목이 빠끗하고, 둘 다 가시밭길에 넘어질 듯 보인다. 확실히 아직까지는 외투를 벗어야 할 타이밍은 아니다.

절실하기 때문에 희망 쪽으로 기우는 이 주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여 접근했다. 다만 전인미답의 길로 가고 있는 남북스포츠교류와 남북관계에서 자신하는데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사정



**한태룡**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책개발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스포츠 사회학 전공  
스포츠와 인간관계에 관심  
05065@kspo.or.kr

에도 원고를 수락하신 저자에게 특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역사(과거)와 실상(현재)에 대한 소개를 다루었다. 원고를 편집하면서 내 스스로가 의외로 북한의 체육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구나 싶었다. 이는 나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어려운 원고를 수락해주신 세 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스포츠교류, 남북교류, 나아가 통일에 이르는 ‘담대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작은 원고가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빌어본다.

그리고 개인적 이야기를 첨부하고자 한다. 업무변경으로 인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2년여 해왔던 스포츠과학특집의 기획자 업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스스로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 힘들 때, 설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분명 각 권을 내기 전에 설렘을 느꼈고, 책이 손에 쥐어진 후 뿌듯함은 덤이었다.

많은 저자와 함께했었고, 모두 훌륭하셨다. 그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는 말로 마지막을 가늠하고자 한다. 행복하시길. 아프지 마시고~~~~

※이 글에 실린 내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